



보도자료

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

팀 장 김 인 곤
담당서기관 임 승 순

▶ 2006. 11. 15 배포
▶ 총 쪽 (사진 없음)

TEL : 503-9719
E-MAIL :
FAX : 503-976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』 개최

- 노동부, 노·사 및 노동법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 -

- 골프장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·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.
- 노동부는 15일 14:00~17:00,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 사옥에서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』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토론회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,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및 박지순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.
-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근 전문위원은 지난 03년 9월부터 '05년 9월까지 「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」에서 논의한 공익위원안을 처음 공개한다.
- 이호근 전문위원에 따르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①근로자성의 강약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여 보호하거나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, ②근로기준법과 노

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, ③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만을 준용하는 안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.

- 또한, 이승욱 교수는 개별적 권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, 집단적 권리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수정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.
- 그리고 박지순 교수는 유사근로자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개별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, 집단적 권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
-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조임영 배재대 교수가 참여하고,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 참여한다.
 - 학계를 대표해서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와 김소영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.
-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지난 수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고, 외국의 입법례도 있는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.”면서
 - “명분에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적 태도는 지양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”했다.